

# 環太平洋地域協力問題와 對應戰略

金 大 植

〈産業研究院 責任研究員〉

## 序

1970年代 후반 이후 世界經濟 및 政治界 일각에서는 “이제 世界는 大西洋의 時代에서 太平洋의 時代로” 혹은 “21世紀는 太平洋의 時代(PAX Pacifica)”라는 말이 심심치 않게 흘러나오고 있다. 이는 人類의 文明과 科學技術, 經濟의 움직임 등을 巨視的으로 살펴볼 때 世界의 主流가 옛날의 로마, 地中海 時代로부터 18C 후반 이후의 PAX Britannica (英國主導의 世界體制), 19C 후반 이후의 PAX Americana (美國主導의 體制)를 거쳐 서쪽으로 이동하여 이제 太平洋 내지 아시아國家들이 世界史를 主導的으로 이끌어가게 될 것임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이러한 歷史的·巨視的 次元에서의 重要性을 차치하더라도 同地域의 經濟的 重要性 및 同地域 內에서의 協力問題는 1970년대 후반 이후 日·美·濠 등 域內先進國 중심으로 적극 論議·推進되어 왔으며 83년 이후 최근에도 主要國의 政策當局者들이 이 問題에 대해 새로이 關心을 集中시키고 있다.

이렇게 同問題에 대해 다시금 관심이 제기되고 지역협력 문제의 重要性이 浮刻되고 있는 것은 ① 아시아諸國을 중심으로 한 太平洋諸國이 최근 世界의 다른 地域國家들에 비해 매우 높은

經濟成長勢를 보이고 있으며 풍부한 經濟的 活力 내지 다이내미즘을 보유하고 있다. ②최근 이 지역의 國際情勢가 크게 變化하고 있는 바 예컨대 종래까지의 政治的 不安定要因이었던 韓半島의 緊張이 다소 緩和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고 또 79년 이후의 香港의 將來가 妥結되었으며 이외에 中共이 近代化路線을 본격 추진하여 日本을 포함한 太平洋諸國과 連帶를 강화하려고 하고 있다. ③이 지역 내에서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美國經濟의 中心이 國內적으로 東部地域에서 中西部地域으로 移動하고 있으며 人口도 sun belt 지역으로 대폭 移動하여 태평양지역과의 重要性이 높아지고 있다는 등의 사실이 背景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우리나라도 아시아·태평양내 지역협력 문제의 重要性을 인식하여 오던 중 1982년 8월 대통령이 직접 太平洋頂上會談을 제의하였는 바 이는 太平洋協力을 위한 政府次元의 最初의 具體的 提案으로서 民間協議活動을 넘어선 政府間協議를 強調한 것이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최근 84년 3월에는 美國의 레이건 大統領이 環太平洋擔當特別移動大使를 임명하고 同 9월에는 政·財·官·學의 4者代表로 구성된 「太平洋經濟協力 美國委員會」를 發足시키는 등 美정부입장에서 環태평양협력 문제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하였다. 한편 종래까지 環태평양협력 문제에 비교적 소극적이었던 ASEAN 제국도 環太平洋內 국가



**焦點**

세계에서 가장 빠른 경제성장을 보인 環太平洋諸國  
〈表-1〉

	60~82년 평균 실질경제성장률
태평양연안국(선진 5국, Asian NICs, ASEAN)	6.5%
EC 국가	3.7%
남미국가	4.8%

註: 82년 현재 자유세계 총 GDP의 50.1% 생산

**성장력이 풍부한 太平洋地域 및 諸國**

〈表-2〉 (70年價格, GDP成長率%)

	60~70年	70~82年
인도네시아	3.9	7.7
태국	8.4	7.1
필리핀	5.1	6.0
말레이시아	6.5	7.7
韓國	8.6	8.6
台灣	9.2	8.0*
香港	10.0	9.9
싱가포르	8.8	8.5
先進國	5.1	2.8
日本	10.4	4.6
美國	4.3	2.7

註: \*은 70~78年, 先進國은 OECD諸國(그리스, 터키, 포르투갈은 제외)임.

資料: 世銀 「World Development Report」 1984.

장세는 거의 둔화되지 않고 있으며 특히 ASEAN 제국은 60년대를 上廻하는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 (〈表-2〉參照). 이 결과 태평양연안국들은 82년 현재 自由世界 總 GDP의 50.1%라는 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좀더 세분해 보면 1960년에 日本 3.7%, 아시아 NICs 0.6%, ASEAN(싱가포르 제외) 제국은 1.7%를 차지하는데 그쳤으나 82년에는 日本 10.9%, 아시아 NICs 1.5%, ASEAN 1.9%로 크게 비중이 높아졌다.

한편 아시아·太平洋地域의 풍부한 鑛物 및 農産物, 海洋資源은 이 지역의 比重과 成長可能性을 더욱 높이는 원천이 되고 있는데 특히 東南亞와 南太平洋에 부존된 각종 天然資源은 대부분 아직 未開發狀態에 있어 세계각국의 관심이 되고 있다. 참고로 태평양경제권에 속한 先進 5 國, 아시아 NICs, ASEAN 등에서 생산되는 主要資源이 세계전체생산에서 차지하는 比重을 보면 〈表-3〉과 같다.

한편 아시아·太平洋地域의 이같은 높은 經濟成長과 방대한 成長潛在力을 바탕으로 환태평양 지역은 종래 세계경제의 중심이었던 大西洋圈에 버금가는 새로운 地域經濟圈으로 浮上하고 있다. 이러한 經濟成長과 經濟構造 變化는 域內的의 相互依存關係를 淨化시켰으며 이는 貿易과 投資面

태평양연안국에서 생산되는 주요자원의 比重(세계를 100으로 봄)  
〈表-3〉

	생산량	세계	태평양 경제권	선진 5국	Asian NICs	ASEAN	태평양 도서국	태평양 중남미
소맥(81)	458백만 톤	(100)	(26.7) 100	96.6	-	-	-	3.4
미곡 "	416백만 "	(100)	(23.4) 100	22.6	9.7	63.4	-	4.3
옥수수 "	452백만 "	(100)	(54.3) 100	87.6	0.1	4.4	-	7.9
천연고무 "	3,791 천 "	(100)	(82.1) 100	-	-	99.8	0.1	0.1
어업 "	76백만 "	(100)	(45.2) 100	46.8	10.1	17.5	0.3	25.3
원목 "	3,143백만 m <sup>3</sup>	(100)	(33.9) 100	57.1	6.5	25.2	0.7	10.5
석탄(82)	2,883백만 톤	(100)	(32.6) 100	96.5	2.0	0.1	-	1.5
원유 "	2,644백만 "	(100)	(28.9) 100	66.6	-	11.8	-	21.6
천연가스 "	56 조 ft <sup>3</sup>	(100)	(44.3) 100	88.4	0.2	3.8	-	7.5
우라늄 "	48,256 톤	(100)	(56.3) 100	100.0	-	-	-	-
철광석(81)	874백만 "	(100)	(28.4) 100	90.2	0.2	0.3	-	9.3
동광석(82)	8,070 천 "	(100)	(55.5) 100	46.3	-	8.8	3.7	41.0

相互依存關係가 強化되는 太平洋地域諸國

<表-4> (往復베이스, 億달러, %)

	60年	65年	70年	75年	82年
• 日本	29.9	54.5	130.7	265.1	680.0
• 北美	(100)	(100)	(100)	(100)	(100)
• 아시아	6.6	11.9	39.2	116.9	414.1
NICs·北美	(22.1)	(21.8)	(30.0)	(44.1)	(60.9)
• 아시아	5.7	10.7	32.2	96.0	268.0
NICs·日本	(18.9)	(19.7)	(24.6)	(36.2)	(39.4)
• ASEAN	7.9	16.2	36.9	133.4	369.6
諸國·日本	(26.3)	(29.6)	(28.2)	(50.3)	(54.3)
• 濠·뉴질랜드·日本	5.4	10.0	23.7	66.5	132.8
	(18.2)	(18.3)	(18.1)	(25.1)	(19.5)

註: ( ) 내는 日本·北美地域間의 貿易額을 100으로 한 指數. 아시아 NICs는 韓國, 香港, 台灣, 싱가포르, ASEAN諸國은 泰國,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資料: IMF 「Direction of Trade Statistics」 및 台灣經濟建設委員會資料.

에서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즉 무역면에서 보면 태평양지역은 극히 다이나믹한(Dynamic)變化가 일어나고 있는데 日本은 機械類 등 高度技術商品을 중심으로 높은 수출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아시아 NICs와 ASEAN 제국도 급속한 工業部門의 擴大로 同製品을 뚜렷이 증가시키는 한편 中間材 및 資本材 輸出도 대폭 증가시키고 있다. 특히 이 지역 내에 있어서의 域內貿易이 매우 활발해지고 있는 바 <表-4>에서 보는 바와 같이 75년 이후로 올수록 아시아 NICs對 北美間, 아시아 NICs對 日本間, ASEAN諸國對 日本間, 호주·뉴질랜드對 日本間 貿易이 더욱 커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아시아 NICs와 北美間의 무역이 최근 日本對 北美間 무역의 60%를 넘고 있으며 또 아시아 NICs 및 ASEAN과 日本間의 무역도 급속히 擴大되어 日本對 北美間 무역수준을 상회하고 있다. 이 결과 太平洋地域에 있어서 域內貿易의 웨어(比率)<sup>2)</sup>는 82년 31점에서 美國은 輸出과 輸入의 48%와 53%를 태평양연안국들과 행하고 있으며 마찬가지로 日本 57%, 46%, 호주

62%, 52%, 아시아 NICs 61%, 56%, ASEAN 제국 74%, 61%를 역내국가들과 행하고 있다. 요컨대 태평양제국들은 역내제국과 서로 가장 중요한 존재가 되고 있는 것이다.

2. 環太平洋地域協力の 諸方案과 現況

이상과 같은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상황 변화를 배경으로 하면서 環太平洋地域協力에 관한 論議가 1960年代 후반부터 本格化 되었는데 日本 고지마教授에 의한 太平洋自由貿易地域(PAFTA)提案, 日本미끼外相에 의한 「아시아太平洋共同體」構想 등이 그 시발이라 할 수 있으며 그 이후로 몇가지 獨立된 提案 혹은 研究發表 형태로 진행되었다. 고지마씨의 PAFTA이후 제기된 가장 有力하고 典型的인 案은 1979년 美國議會에 제출된 太平洋貿易開發機構(OPTAD)案과 1980년에 최종 보고서가 나온 日本政府內 環太平洋研究그룹에 의한 環太平洋連帶案이었다. 3가지 案의 간략한 내용을 보면 <表-5>와 같다.

이 가운데서 PAFTA案은 制度的 統合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이 지역내의 先進5個國(美國, 캐나다, 日本, 濠洲, 뉴질랜드)을 中心으로 自由貿易地域을 만들어 域內關稅를 철폐하고 장기적으로 關稅同盟이나 共同市場, 經濟同盟 등 보다 높은 단계의 統合體로 발전시키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EC나 EFTA와 같은 형의 制度的 統合案은 동질성이 높은 지역협력의 경우 가능하나 아시아·태평양처럼 이질적인 요소가 많은 경우는 곤란하다고 판단되어 그러한 制度的 統合案에 대신하는 機能的 統合案이 대두되었다. 즉 PAFTA는 바로 실현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환태평양지역에서 이러한 제도적 통합을 실시할 수는 없고 우선 무역 등 特定部門의 問題를 調整하고 協議하여 참여국들의 경제적 厚生을 증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론지어

2) PBEC資料(美, 日,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홍콩, 대만, 한국, ASEAN, 태평양도서국, 라틴아메리카를 대상으로 함)에 의한 것.

아시아·太平洋經濟統合案의 諸類型

<表-5>

	PAFTA (太平洋自由貿易地域) Pacific Free Trade Area	OPTAD (太平洋貿易開發機構) Organization for Pacific Trade and Development	環太平洋連帶 Pacific Basin Cooperation Concept
提案年度 및 提案者	1965 日本 K. Kojima	1979 美國議會 H. Patrick, P. Drysdale	1979 (中間報告) 1980 (最終報告) 日本政府 環太平洋連帶研究그룹
性 格	制度的 統合 <sup>1)</sup>	機能的 統合 <sup>1)</sup> (制度的 統合을 위한 中間 段階)	機能的 統合 <sup>1)</sup>
目的 및 機能	自由貿易地域	貿易·開發·産業問題 등의 相互協力 및 調整	經濟的, 社會·文化的 協力 擴大를 통한 經濟協力體
形 態	EFTA, EEC 型的 政府間 初步的 統合機構	政府間 經濟協力機構 Task Forces 中心	官民協力機構로 Task Forces 中心
會 員 國	美國·캐나다·日本·濠洲 · 뉴질랜드 準會員國: 亞細亞 및 中南 美의 開途國	14 個國(太平洋先進 5 個國, ASEAN 5 個國, 韓國·台 灣·홍콩·파푸아뉴기니아)	具體的 提案없음.
發 展 過 程	1968 年 PAFTAD 會議에서 同案이 討議·受容되지 못 하여 機能的 統合案으로 修 正됨.	1980 年 Canberra 會議에서 太平洋共同體構成을 위한 準備 機構로서 太平洋經濟協力會議(PECC =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Conference)가 發足되어 發展하고 있음. 우리 나라에서는 1982 年 太平洋頂上會談을 提案한 바 있음.	

註) 1) 어떤 地域內에서 國家間에 행해지는 經濟的(또는 政治的·社會的) 統合에 있어서는 두가지 형태가 있는 바 製品과 生産要素의 자유로운 移動을 통해 經濟的 利益을 높이려는 國家들 간의 緊密度에 따라 크게 나누어 볼 때 調整과 協力的 段階(Coordination and Cooperation Stage)를 거쳐 完全한 포괄적 統合의 段階(Integration Stage)로 進化·發展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러한 調整과 協力的 關係가 機能的 統合이고 포괄적 統合의 關係가 制度的 統合임.

資料: 産業研究院 「아시아·太平洋經濟統合의 效果分析」 1984.

졌고 그러한 機能的 統合案의 하나로서 1979년 美國議會에 의해 太平洋貿易開發機構案(OPTAD: The Organization for Pacific Trade and Development)과 日本에 의해 環太平洋連帶案(Pacific Basin Cooperation Concept)이 제기되었던 것이다. 이상의 제방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PAFTA 案

고지마의 PAFTA 案은 太平洋地域 先進 5 個

國(美國, 캐나다, 日本, 濠洲, 뉴질랜드)이 自由貿易地域의 結成을 目標로 하는 制度的 統合案으로서 域內國家의 關稅削減은 10~15年의 期間을 두고 段階的으로 推進하되 全品目에 대한 關稅를 引下하는 方法을 취하고 있다. PAFTA 案은 長期的으로 共同市場이나 經濟同盟을 指向하고 있다.

1968 年 第 1 次 PAFTAD 會議에서 고지마의 PAFTA 構想案의 實現可能性이 檢討되었는데 PAFTA 案과 같은 制度的 統合案은 아시아·太

平洋地域에서 實現되기에는 時期尙早라는 結論에 도달하게 되었다. 그 理由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였다.

첫째, 會員國들은 GATT, IMF, UNCTAD 등을 통한 多者間協商을 選好하였으며 그 當時 1967年 타결된 GATT 第6次 貿易協商인 케비디·라운드의 結果에 상당한 기대를 갖고 있었다.

둘째, 이 고지마식의 통합이 이루어질 경우 關稅削減의 利益이 日本에 편중되고 餘他 參加國에 不利하게 나타나 會員國들은 PAFTA의 設립에 否定的 反應을 보이게 되었다. 특히 汎世界的이며 無差別의인 貿易政策을 고수하던 美國은 당시 特定地域의 集團化에 參加할 立場이 아니었다.

셋째, PAFTA의 設立은 域內先進國과 準會員國인 開途國間의 經濟的 隔差를 擴大할 것이라는 開途國側의 反발을 받게 되었다. 즉 域內關稅는 削減되고 對開途國에 대한 關稅가 존속된다면 先進國의 輸入은 開途國에서 域內的 다른 先進國으로 轉換될 것이며 이것은 開途國의 貿易構造를 退行시키게 되고 結果的으로 그들의 産業構造 高度化를 방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 2) OPTAD 案

Drysdale - Patrick의 OPTAD案은 美議會에 1979년에 제출된 것으로서 이 案이 제출되자 美國의 上院과 下院의 外交委員會는 聽聞會를 개최하는 등 아시아·太平洋地域의 經濟統合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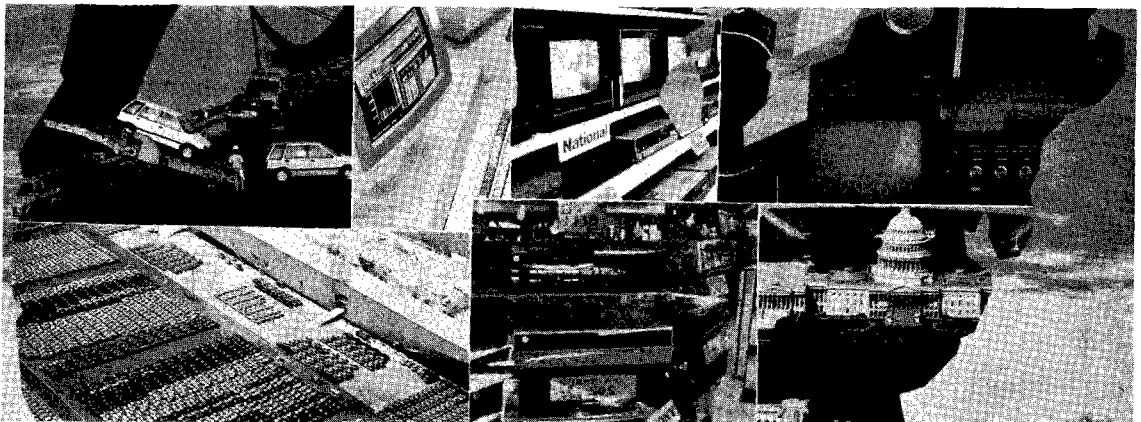
構成 問題에 積極성을 보이게 되었다.

이 案은 Kojima - Drysdale 案의 基本性格인 協議機構인데 반해 協議機能보다 協力機能을 強調하고 參加國 범위도 美國, 日本, 캐나다, 濠洲, 뉴질랜드 등 아시아·太平洋先進 5個國이 아니라 ASEAN 5個國 및 韓國, 臺灣, 홍콩 및 파푸아뉴기니아 등 14個國을 포함하였으며, 制度的 統合의 중간단계로서가 아니라 機能的 經濟統合의 效果를 기대하는 地域經濟協力機構의 性格을 가지고 있었다.

이 構想案은 아시아·太平洋地域에 經濟協力機構(OECD)와 類似한 包括的 經濟協議體를 誕生시켜 이 地域의 貿易·投資, 其他 諸般經濟開發 問題를 다루고 이를 통하여 經濟統合 問題에 접근하려는 方式이다. OPTAD는 OECD의 太平洋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OPTAD는 先後進國이 共同으로 參與하는 地域協力機構이며, 共產國家에 대해서도 障子 門戶를 開放한다는 점에서 OECD와 그 性格을 달리하고 있다. 또한 OPTAD는 經濟協力機構라는 점에서 EC 등의 經濟統合機構와는 基本性格의 差異가 있다.

OPTAD가 갖는 이와 같은 彈力的인 經濟協力機構의 性格은 다음과 같은 면에서 아시아·太平洋諸國에 適合하다고 할 수 있다.

첫째, 北美國家들은 太平洋國家인 同時에 大西양國家로서 이 중 兩者擇一하여 自由貿易地域이나 關稅同盟과 같은 制度的 經濟統合體에 參加할 立場이 아니다. 그러나 OPTAD와 같은 彈



力的인 協力機構에의 參加에는 他國이 反발을 일으키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둘째, OPTAD의 協力體의 性格은 經濟統合이 새로운 形態의 支配手段이 될지도 모른다는 域內開途國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다.

세째, 아시아·太平洋地域은 政治·經濟·社會文化의 各分野에서 여러가지 異質的 要素를 內包하고 있다. 여기에 彈力性이 없는 엄격한 行動秩序를 強制하는 地域統合體는 새로운 마찰과 분쟁을 일으킬 것이다.

OPTAD의 具體的 目標은 ① 아시아·太平洋地域諸國의 貿易 및 經濟問題를 協議·調整함으로써 相互依存關係를 圖謀하는데 效果的인 役割을 遂行하고 ② 아시아·太平洋地域內 開發途上國에 대한 援助와 投資를 促進함으로써 同 地域의 南北問題를 改善토록 하며 ③ 亞細亞·太平洋地域의 長期的 開發과 經濟構造에 대하여 協議하기 위한 Forum을 提供하고 ④ 아시아·太平洋地域諸國間의 보다 確固한 經濟的 紐帶의 틀을 提供함으로써 經濟統合을 促進하며 會員國들이 同 地域의 共產主義國家(中共·蘇聯·인도차이나 3國)와도 經濟關係를 擴大한다는 것이다. OPTAD案은 初期會員國家로 아시아·太平洋地域 14個國家를 選定하고 있다. 즉 太平洋 先進 5個國, ASEAN 5個國(泰國·말레이시아·싱가포르·인도네시아·필리핀), 東北亞 新興工業國(NICs)인 韓國·臺灣·홍콩 및 西南太平洋의 파푸아뉴기니아 등 市場經濟體制를 갖는 14個國이 그것이다. 그러나 OPTAD는 經濟協力機構로서 排他性이 없으므로 앞으로 太平洋沿岸의 中南美諸國, 인도·파키스탄·스리랑카 등의 南亞細亞諸國, 나아가서 中共·越南·캄보디아·라오스·蘇聯 등의 社會主義國家들에 대해서도 門戶를 開放해야 한다고 한다.

한편 OPTAD의 組織原則은 ① 會員國의 政府間 機構로 組織하며 ② 美·日의 主導下에 濠洲·韓國을 비롯한 東南亞諸國, 其他 太平洋沿岸 國家가 충분히 參與하도록 하며 ③ 行政機構는 小規模로 하되 過度한 官僚組織이 되어서는 안되며 ④ 諸般問題는 政治的 高位協議機構(會員國의 大統領 또는 각료로 構成되는 頂上會議 또는

閣僚會議)를 통하여 提起하며 그 밑에 運營委員會 또는 事務局을 두며 主要業務는 專門家로 構成되는 Task Forces에 의하여 處理하고 ⑤ 運營方式은 協議的이고 充分한 意見交換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특히 政策問題의 協議와 情報交換을 重視할 것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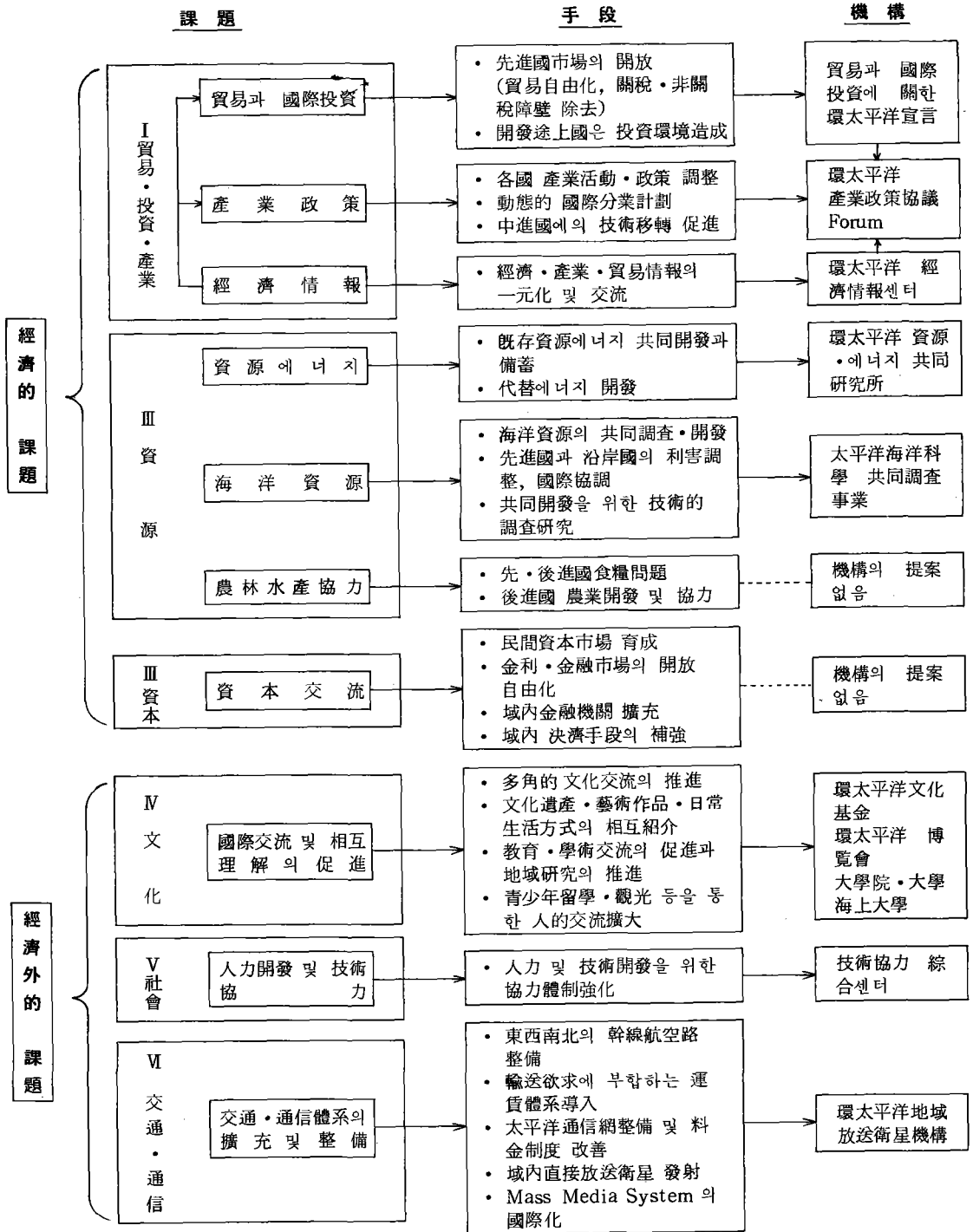
### 3) 「環太平洋連帶」構想案

OPTAD와 類似한 機能的 統合을 內容으로 하는 構想案이 日本의 故 오히라(大平正芳)수상의 政策諮問機構인 「環太平洋連帶研究그룹」에 의하여 1980年 發表된 「環太平洋連帶案」이다.

이 構想案은 21世紀까지 아시아·太平洋地域에 「緊密한 連帶感」에 입각한 經濟·文化·社會 등 광범위한 分野에 걸친 地域共同社會를 建設하고 域內國家의 福祉와 번영을 追求한다는 것이다. 實質的으로는 社會·文化的 域內 國際交流를 擴大하여 相互理解의 바탕을 마련하고 이 바탕 위에서 地域經濟를 機能적으로 統合하려는 것이다.

<그림-1>에서와 같이 環太平洋連帶案의 核心課題는 貿易·資源·資本 등 經濟分野의 課題이다. 이러한 經濟的 課題를 效果적으로 實踐하기 위하여는 經濟外的 分野에 의한 基盤造成이 前提條件이 되고 있다. 具體적으로 連帶案은 文化·教育·學術 및 觀光分野에서 國際交流의 促進 및 이를 뒷받침하는 諸般手段과 交通·通信體系의 擴充 등에 필요한 20가지 以上の 經濟外的 課題를 들고 있으며 이중 環太平洋文化基金設置 및 交通·通信分野課題를 除外한 經濟外的 課題들에 대해서는 對外協力과 같은 次元에서 日本이 主導權을 갖고 擔當하겠다고 하고 있다.

連帶案이 提示하고 있는 經濟部門의 課題는 이미 言及한 바와 같이 貿易 및 投資의 擴大, 產業調整, 資源開發協力 및 資本交流促進의 세 가지이다. 經濟的 課題中 核心이라 할 수 있는 貿易 및 投資擴大와 產業調整을 위해서는 貿易과 國際投資에 대한 原則인 環太平洋宣言을 채택하고 이 原則을 實際에 適用하기 위해 「産業政策協議포럼(Forum)」을 둔다는 것이다. 이 機構는



< 그림 - 1 > 日本 「環太平洋連帶」案의 概要



情報交換·調査·研究를 통한 域內 相互間의 政策理解와 共同認識의 提高를 指向하지만 점차 政策指向의 性格을 띠어 OPTAD의 前段階의 性格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이 構想案은 參加國의 範圍에 대한 具體的인 言及은 없으나, 原則的으로 市場經濟를 채택하고 있는 域內 모든 國家로 하고, 中共을 가능한 參加國으로 본 것은 OPTAD案과 같다.

組織 및 그 運營形態는 官民合同協議方式을 채택하며 이것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게 되면 環太平洋連帶의 制度的 裝置로서 國際協議機構를 設立하고 그 機能을 強化하기 위해 事務局을 設置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組織 및 그 運營上의 特徵은 漸進性과 多元性에 있다. 따라서 最終的인 合意와 國際機構의 設立까지는 상당한 期間이 필요하다고 보아 環太平洋連帶의 具顯時期를 21世紀까지로 여유 있게 設定한 것이다. 또 域內 國家들의 多樣한 利害의 調整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政府 및 民間 베이스에 의한 協議方式을 택하고 一括妥結方式이 아니라 部分的인 데서부터 最終合意를 誘導하는 方式을 취하고 있다.

## Ⅱ. 環太平洋協力에 관한 各國의 立場

위에서 언급한 環太平洋協力を 위한 共同體 내지 協力體 構成 등 具體的 協力方案(形態)과 관련하여 域內 該當國들의 利害關係 및 立場은 여러모로 다르며 서로 相衝하기도 하였다. 사실 「環太平洋共同體」라는 組織體 내지 機構가 약 20년전에 제기되었으나 아직껏 實體로서 成立하지 못한 것은 바로 이 組織體에 대한 域內 各國들의 利害關係 및 觀點이 相異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그와 같은 利害關係 및 觀點의 相異를 가져오게 하는 直接的 背景 혹은 源泉으로 작용해 온 것은 域內 國家間 經濟 혹은 政治的 면에서 基本的인 競爭 내지 葛藤關係가 存在해 왔거나 현재도 存在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즉 域內

의 先進國과 後進國間은 물론이고 域內 中進國과 先進國間 또는 域內 中進國과 後進國間에는 상당히 커다란 競合 및 葛藤關係가 존재하여 環태평양지역협력체 구성에 있어서 커다란 異見을 노증하여 왔음은 물론 그와 동시에 70년대 및 80년대 초반 지금까지의 相互經濟關係에 있어서 적지않은 摩擦을 빚어오고 있는 것이다.

### 1. 美 國

태평양지역협력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美國의 積極的인 參與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또한 美國立場에서도 太平洋地域協力を 積極化함으로써 이 지역의 日本經濟圈形成의 沮止, 소련의 軍事的挑戰을 간접적으로 억제함, 中共과의 제휴긴밀화 등 明白한 利益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美國은 이 地域에 있어서 協力에 대해 망설이고 있으며 뚜렷한 태도를 취하지 않고 있는데 그 理由는 ① 汎世界的 自由貿易主義와 無差別主義를 原則으로 하는 GA-TT 體制의 弱化憂慮 ② 美國이 결국 霸權主義志向 國家라는 비난우려 ③ 分化主義 비난의 우려 ④ 歐洲 및 中南美地域과의 傳統的 利害關係의 損傷 우려 등 때문이었다. 이외에 보다 근본적인 理由는 美國인들이 2次大戰後의 강력했던 “大西洋主義(Atlanticism)”와 맞먹는 적극적인 “太平洋主義(Pacificism)”라는 이념을 갖고 있지 않다는데 있다. 즉 아직도 대다수 美國人에게는 太平洋地域이 주로 日本을 의미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日本을 제외한 태평양지역의 重要性이 아무리 크다하더라도 美·日關係의 重要性을 능가할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다.

이렇게 環태평양지역협력 문제 접근에 있어서 美國이 소극적 자세를 보인 바 있지만 그 기본적인 重要性은 인정한 바 있어서 전술한 78년 美議會에 의한 Patrick案이 제시된 바 있으며 최근에 와서는 美政府도 각별한 關心을 보이고 있다. 특히 레이건大統領은 84年 1月 太平洋協력을 위한 專擔大使를 임명하고 太平洋協力 美國委員會의 활동에 촉구를 가한 바 있다. 또 85년 초에는 나카소네 日本首相과의 회담에서 태평양



이들 3 나라는 先進工業國으로서 資源保有國이다. 이중 濠洲는 環太平洋協力體의 構想段階에서부터 積極的인 입장이었다. 그것은 호주가 環태평양지역의 국가들과 점점 더 높은 貿易依存度(輸出의 약 70%, 輸入의 약 60%)를 가지게 되었고 앞으로는 호주가 西方世界의 일원으로서 보다 西太平洋地域이나 아시아지역의 일원으로서 存立하게 될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호주는 만약 美國이 環태평양협력체의 일원으로 참가한다면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다. 그것은 西太平洋地域이 日本의 支配權下에 놓이지 않도록 美國이 牽制力을 행사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어쨌든 84年 11月 총선에서 Hawke 首相이 再選됨으로써 호주는 環태평양협력체설립에 더욱 적극성을 띠 것으로 보인다.

또 뉴질랜드도 美國이 직접적인 軍事介入 형태 보다는 多邊的 機構에 의해 西太平洋地域에 接近하여 經濟的으로 介入하는 것을 희망하는 입장이어서 環태평양협력체 문제에 있어서 호주와 그 軌를 같이 하고 있다.

또한 캐나다도 美國이 環태평양지역협력에 가담한다면 당연히 참여하리라 판단된다.

이렇게 세 나라 모두 環태평양지역협력에 적극 참여하리라 보는 것은 경제적 측면에서의 의존도 증대 못지않게 西太平洋地域에 있어서의 日本의 진출확대와 支配權強化를 경계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이들 나라는 다음과 같은 두가지 선택 첫째, 유럽-美國과의 전통적인 유대관계를 유지하면서 西太平洋地域을 日本의 經濟的 支配에 맡겨두느냐 아니면 둘째, 광범위한 環태평양지역에서의 多邊的이고 制度的인 經濟協力에 참여하여 이를 促進시키느냐 하는 문제에 부딪치게 되면 결국 후자를 택할 가능성이 훨씬 많은 것이다.

### 5. 韓國·台灣 등 新興工業國

한국과 같은 ASEAN 이외의 新興工業國들이 있어서 環태평양지역의 經濟的 協力 내지 協助의 문제는 持續的인 經濟成長과 活力의 形成에 매우 중요하다.

즉 環태평양협력력이 본격화되면 ASEAN 등 개도국으로부터 더욱 원활하게 重要資源을 供給 받을 수 있고 美·日 등 선진국 시장에 보다 적극적으로 혹은 보다 용이하게 진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거꾸로 ASEAN 등이 工業化 템포를 높여 일부 工產品 등을 더욱 적극적으로 수출하려 할 것이며 선진국들도 高度技術商品 서어비스 등을 더욱 강력하게 수출하거나 資本·금융진출을 본격화 하는 등 부정적 효과도 상당히 발생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신흥공업국들은 이 지역 내에서 적극적 경제협력력을 강조하고는 있지만 호주나 일본과 같이 環태평양협력력을 주도하는 입장은 되지 못한다. 비록 한국이 82년에 域內頂上會談 개최를 주장하였지만 이는 주도적 입장에서 라기보다는 분위기의 형성이라는 보조적 입장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만은 中共과의 정치적 관계 때문에 소극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 Ⅲ. 앞으로의 協力展望과 우리의 對應戰略

### 1. 예상되는 展開方向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環太平洋協力は 당초의 理想的이고 積極的인 ‘共同體構想’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상태에 머물러 있는 바 정책 협의적 기능이 중시되는 美國의 OPTAD案은 물론 점진적·장기적 접근 방식인 日本의 環太平洋連帶案의 實現에도 이르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다만 최근 84년 이후 美國·日本 및 濠洲의 關心이 새로이 浮刻되었으며 종래까지 극히 소극적이었던 ASEAN이 약간의 好意 내지 制限된 關心을 表明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앞으로도 예컨대 5~10년이라는 短期內에 혹은 20~30년이라는 長期 이내에 이러한 本格的인 環太平洋地域協력이 뚜렷하게 進展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한 본격적인 環태평양협력력은 아마도 日本



이 구체화되기를 원하면서도 협력 형태면에서는 OPTAD案을 지지할 가능성이 많다.

한편 대만, 한국 등은 經濟關係에 있어 美國, 日本 모두와 絶對的으로 重要한 유대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환태평양지역협력권 형성에 대해서는 찬성·동조하는 편이다. 그러나 ASEAN 제국과 中共이 앞으로의 경제협력관계에 있어서 美國·日本·호주·뉴질랜드 등에 압도적인 比重을 둘 가능성이 많으므로 어떤 형태로 협력이 전개되든 상당히 많은 경합 내지 갈등상황에 부딪칠 것으로 보인다.

## 2. 우리의 對應戰略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고지마案 혹은 OPTAD案과 같은 적극적인 環太平洋協力方案이 本格的으로 展開, 進陟할 가능성은 短期的으로는 물론 中長期的으로도 극히 不透明하다. 또한 韓國과 台灣, 香港과 같은 域內 新興工業國의 경우 環太平洋協力の 本格化가 經濟的 利害關係面에서 긍정적이고 有利한 쪽으로만 作用한다고 할 수가 없다. 즉 協력이 本格化되어 全面的 關稅引下, 自由貿易地帶設置, 共同市場形成 등 典型的인 自由化가 이루어지거나 또는 貿易과 資本의 自由化 등 國內市場의 開放化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輸出增大, 資源確保, 中共 등 新規市場의 開拓 등 肯定的 효과도 적지않을 것이나 輸入의 擴大, 高度技術의 侵透, 先進國經濟에의 從屬 등 否定的 效果도 상당히 클 것으로 보인다. 즉 美·日 등 선진국 商品 및 資本의 더욱 強力한 進出과 ASEAN 제품의 新구진출을 허용하게 됨으로써 긍정적 효과가 크게 상쇄될 가능성이 많은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觀點에서 볼 때 韓國은 美·日 혹은 濠洲 등이 環太平洋地域協力を 急進的으로 進陟시키려고 할 경우 또는 韓國을 분위기造成者로 앞에 내세우려 할 경우 이에 盲目的으로 同調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또한 지금과 같이 협력전개의 展望이 不透明한 상황에서는 여러나라 간에 實質的 呼應을 얻지 못하는 政府間 協議體構想 혹은 外交的 名분에

치우친 감이 있는 頂上會談 開催 등을 우리나라 단독으로 強調하거나 자주 거론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판단된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환태평양내 협력이 적극적 혹은 소극적으로 전개될 여러 경우를 모두 假定하여 그 경우마다 域內 國家들과의 利害得失 등을 모두 合算하여 그것이 極大化되도록 하는 장단기 협력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단기적으로는 日本의 連帶構想案을 部分的으로 認定하여 共同開發事業에 참여하거나 기존의 협력기구활동에 적극 참여토록 하는 한편 실무협의 차원 이상의 직접적 협력이 본격화되는 경우에는 그 움직임에 맹목적으로 또는 先導的, 積極的으로 나서는 것은 좋지 않다. 이와 아울러 中長期的으로는 ASEAN, 中共에 대해서는 雙務的 形態의 經濟協력을 계속해서 強化 내지 緊密히 할 필요가 있다. 즉 이는 環太平洋協力の 本格化에 부응하여 대비한다는 측면도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對開途國 經濟協力擴大를 도모한다는 戰略을 구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환태평양지역협력에 있어서 美國과의 關係 내지 協助는 이 지역에 있어서 日本의 지나친 優位性을 견제한다는 次元에서의 美國의 立場을 活用·支援함으로써 우리나라가 ASEAN 등 開途國과 참된 南南協力 關係를 구축·유지할 수 있도록 美國이 우리를 적극 도와주도록 유도하고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나라는 美國의 OPTAD方式 또는 기타 미국식 방안을 긍정적으로 지지 내지 협조하는 입장을 취하는 대응이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이상과 같은 기본원칙 내지 전략에 입각하여 太平洋經濟協力會議(PECC), 太平洋經濟人協議會(PBEC), 太平洋貿易開發會議(PAFTAD)의 제반 活動 및 會議에 우리나라가 적극 참여하고 특히 특정 研究課題 및 實務作業에는 능동적·체제적 활동 및 기여를 해야 할 것이다. 또 중요한 것은 이러한 기존 협의기구에 참여하면서 우리나라의 業界, 學界, 政府 등의 입장이 전체적 일관성과 유기성을 가지도록 국내적인 유대강화 및 컨센서스 형성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